

#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익산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적극 추진

익산시는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영업 재개시 디아로움 정책수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이어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지원과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제조

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0.8%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별 시설개선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 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을 통해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 “농업인들 불편사항 해소 계기”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본격 운영

익산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을 통해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시는 29일 2008년 합월읍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2014년 금마·왕궁 등을 관할하는 등부분소에 이어 3번째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개소했다.

남부분소는 오산농협의 빈 창고건물을 임차·리모델링해 340㎡로 조성됐으며,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 불편함을 겪었던 오산 목전동 평화동, 동산동 지역의 농업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분소는 지역 농업인이 많이 찾는 농기계를 사전조사해 농두림조성기, 원판쟁기 등 15종 40여의 농업기계를 구비,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대비하고 있다. 임대농업기계 이용은 사용일전 예약 신청하며, 최대 3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임대사업소 개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문화도시 익산 시민총회, ‘시민추진단’ 발대식

익산시가 문화도시 시민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법정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일린다.

시는 29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시의장 시민추진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총회를 진행했다.

총회는 시민추진단 운영방식 설명, 시민추진단장 선출 및 발대식, 분과별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5개 분과(도시와 역사, 도시경관과 왕도정원, 보석문화도시, 예술도시와 거점공간, 시민기자단)로 나뉘어 분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장도 토론에 참여해 시민들이 만들고 싶은 문화도시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의견을 내었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됐으며, 약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끼게 했다.

시민추진단은 이날 ‘문화도시 익산 시민총회’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개최되는 다같이 회의 및 분과별 모임에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문화도시 모니터링, 포럼 참석, 시민 제안사업 심사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된다.

정현을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문제를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해결하는 시민주도 사업으로, 시민추진단은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익산을 문화적으로 변화시켜 도시 발전을 이루는 주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4.1일부터 식품·카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군산시, 홍보 캠페인 펼쳐

군산시는 관내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됨에 따른 홍보 활동이다.

사용규제를 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5,543개소로, 해당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이쑤시개·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군산시는 관내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관내 식품접객업 밀집지역인 수송동 조촌동 현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관내 식품접객

업소 5,543개를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 관내 행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짬뽕 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

군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짬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이어 신규입점자에게 시설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지역은 공고일 이후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로 모집업소는 2~3개소,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나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이며, 조리도구 및 비품 구매는 불가하다.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예산 한도내 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20% 매칭은 필수사항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식당 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

시공고란의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다혜 위생행정과장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짬뽕거리가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